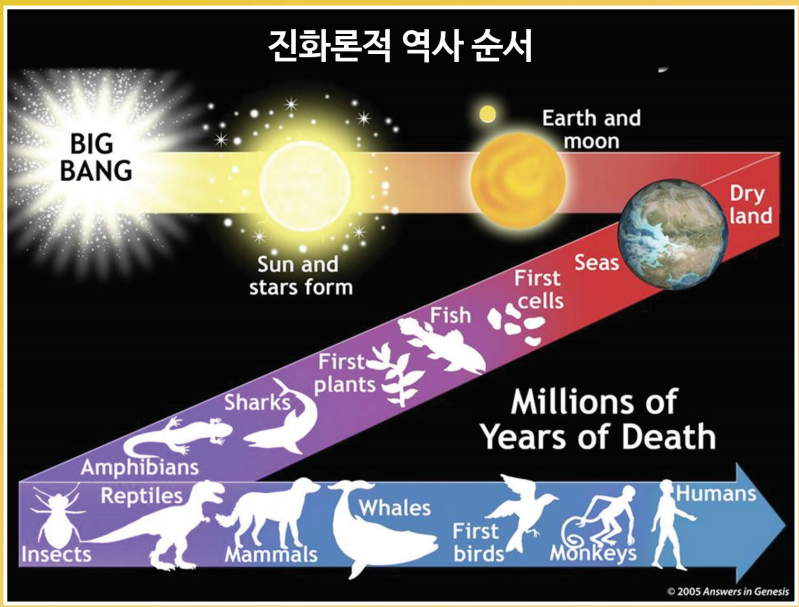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5 Number 12 12 2017



진화의 기본적 문제점들

진화론은 무생물에서 단순한 생물로, 또한 그 단순한 생물이 자연선택와 돌연변이 과정을 거쳐 복잡해져서 결국 가장 고등한 지금의 사람에까지 변화되었다는 기원에 관한 이론이다. 그러나 이 진화론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 관찰과 시도들을 통해 보면 모든 면에서 상반된 증거만 보여준다.

무생물에서 생물로?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무생물을 생물로 변화시키려 해 온 과학적 시도는 늘 실패해왔다. 무생물에게 어떤 변화를 주어도 단 하나의 생명(life)를 얻어내지 못했다. 생물 교과서에 들어있는 가장 유명한 밀러의 실험도 그 실상을 보면 생명을 얻어낸 것이 아닌 무기물

을 유기물로 전환시킨 결과일 뿐이다. 실제로 모든 에너지와 물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무질서해지는 열역학 2법칙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무생물이 더욱 질서를 갖추어야 하는 생물로의 전환은 이 과학의 기본 법칙에 위배되는 사고의 발상이다.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생물학적 실험을 볼 때, 한 종류(kind)에서 다른 종류의 생물로 진화, 즉 소위 말하는 대진화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모든 생물학적 시도들은 한 종류 안에서 변화하는 '변이'일 뿐이다. 유전자의 복제 가운데 발생하는 돌연변이나, 한 종류에서 지역적, 환경적, 인위적 격리에 의해 발생하는 종분화를 포함해서 모든 생물학적 과정과 시도들은 종류를 뛰어넘지 못한다. 실제로 생물학의 기본 법칙인 유전법칙은 이를 대변해준다. 이 법칙은 생물의 다양함이 한 종류 안에서의 유전적 재조합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대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진화론적 사고는 생물학의 기본 법칙을 무시해야 하는 사고의 발상이다.

전이 화석의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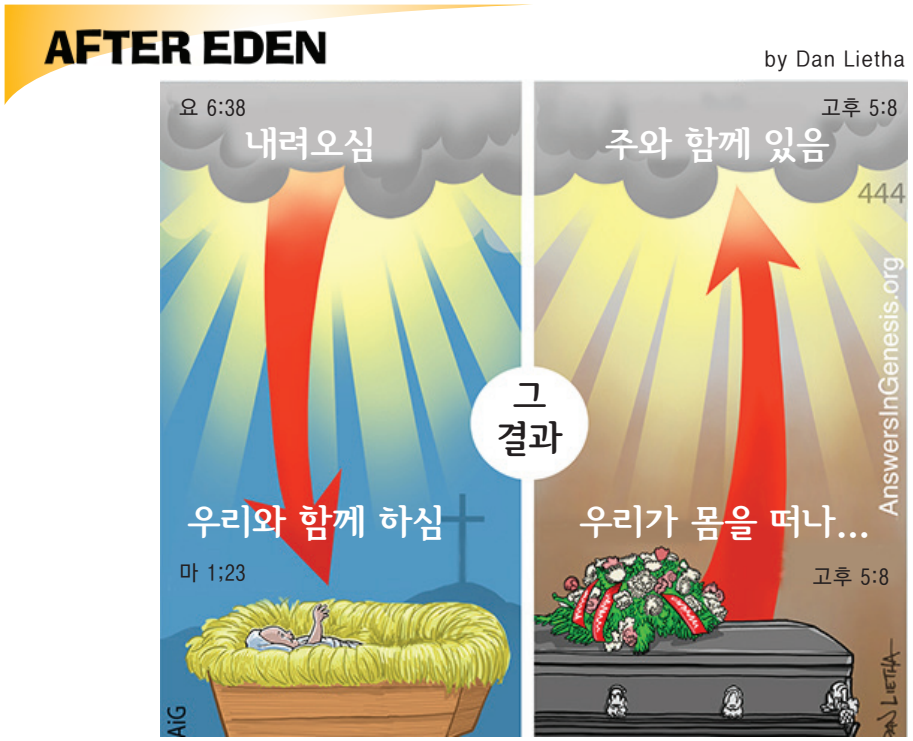
살아있는 생물뿐 아니라 과거에 살았었던 화석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 가운데 각 종류로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어야 할 전이형태로 확정된 것은 없다. 전이 화석으로 몇 개가 발표된 적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많은 반박에 부딪혔으며 전이 생물로써 만족스럽지 않은 화석으로 결론 났다. 더군다나 그 전이형태의 조건은 완벽한 모습이 아닌 완벽으로 변하고 있는 불완전한 모습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듯이 파충류에서 새로 진화되었다면 파충류의 앞발이 날개로, 피부가 깃털로 변화되는 어중간한 단계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애매한 모습은 기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다. 자연은 이런 애매한 모습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기대하는 자연선택은 완벽한 기능을 하는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지, 기능을 못하는 불완전한 모습의 생물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진화론은 살아있는 것이나 화석에서 전이 형태의 생물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는데 믿도록 강요하는 독특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유전 정보의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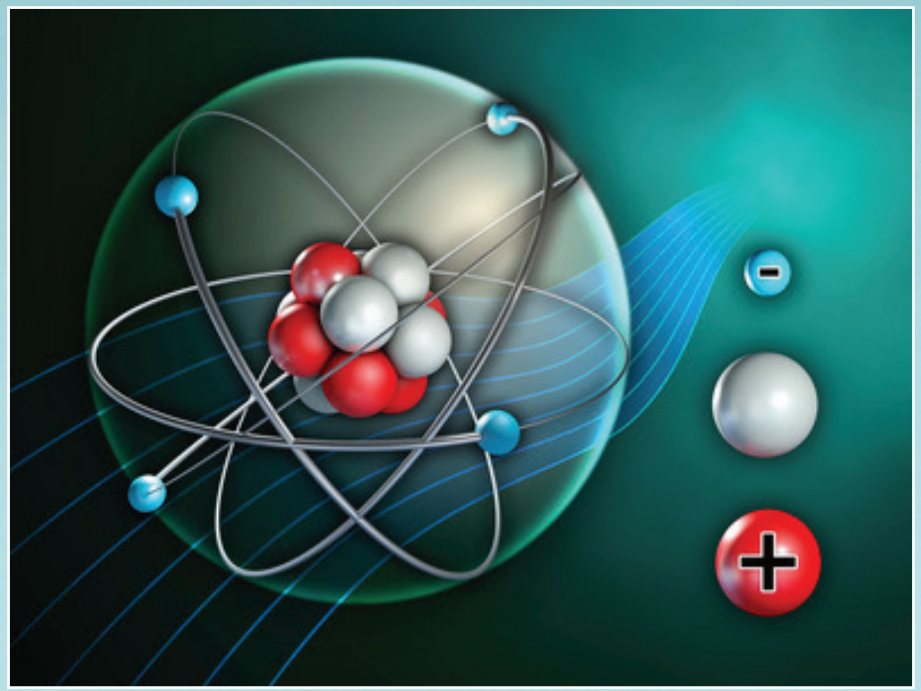
유전적 메커니즘은 어떠할까? 사람을 포함해서 생물들의 다양한 모습은 모두 부모에게서 얻은 유전적 재조합의 결과들이다. 유전적 재조합은 유전법칙 안에서 종류를 뛰어넘는 어떤 도약을 일으키지 않는다. 만약 과거나 지금 진화가 일어났었다면 진화 과정 가운데 새로운 유전정보가 새롭게 획득된(gain) 경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앞선 예와 같이 파충류에서 새로 진화했다면 파충류에서 새의 깃털을 발생하게 하는 새로운 유전정보가 추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연과정이나 돌연변이 연구는 어떤 새로운 유전정보가 획득된 예를 보여주지 않는다. 많은 자연과정이나 돌연변이는 오히려 유전정보의 새로운 획득이 아닌 감소(loss)를 보여준다.

위의 기본적인 예들은 진화론이 기원에 관하여 얼마나 허술한 이론인지를 보여준다.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처음부터 "종류대로" 완벽한 기능을 하도록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아울러 성경은 이 '종류'라는 용어를 '씨를 보전하는'(창 7:3)이라는 유전적 한계로써 사용하였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 지질학적 관찰과 실험의 결과들은 이 성경 기록과 잘 조화를 이룬다.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 1:21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 Q&A(1)

왜 방사성 탄소는 화석의 연대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가?

그 대답은 기본적인 물리학에 있습니다. 방사성 탄소 ^{14}C는 매우 불안정적인 원소이고 짧은 시간 안에 질소로 바뀝니다. 최초의 ^{14}C의 절반이 안정적인 ^{14}N원소로 단지 5,730년 후 붕괴됩니다. 이러한 붕괴속도라면, 57,300년 (혹은 10번의 반감기가 지난후) 이 지나면 ^{14}C이 거의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진화론적 과학자들의 주장대로 화석들이 정말로 몇 백만 년이나 되었다면, 화석 안에는 ^{14}C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만약 지구 전체가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로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약 백만 년 후에는 ^{14}C이 모두 붕괴하고 남지 않게 됩니다!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를 측정하는 기술의 놀라운 정확성

대부분의 실험실에서는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를 질량 가속 분석기(Accelerator Mass Spectrometer, or AMS)라고 하는 매우 정밀한 기계를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그것은 문자적으로 ^{14}C을 하나 하나 셀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기계는 100조의 ^{12}C 원자 중에 있는 하나의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 원자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AMS 측정기는 가끔 그것이 배경(background)이라고 불리는 실험실에서 생기는 오염을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탄소 동위원소가 전혀 없는 암석 샘플이 가끔 이 기계에 넣어진 후, 그 정확도를 검증합니다. 화석이나, 석탄이나 대리암이 몇 백만 년이나 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가장 좋은 샘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가 발견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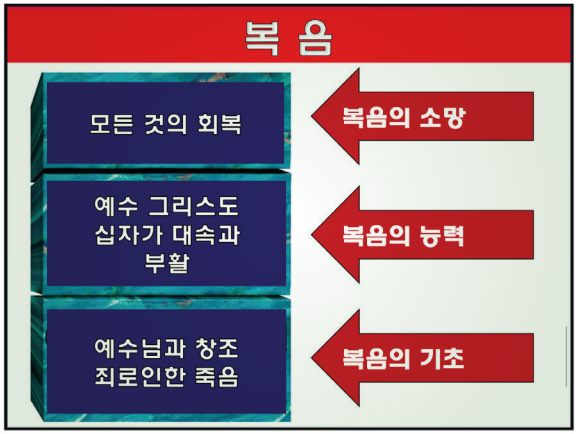
모든 "고대의" 탄소화합물 중에서 검출가능한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가 발견되었을때의 충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석, 석탄, 원유, 천연가스, 석회암, 대리암, 그리고 흑연 등 모든 대홍수와 연관된 암석층 – 그리고 대홍수 이전의 층에서조차 – 검출가능한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

한 모든 결과가 세속적인 과학논문지에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암석층이 단지 몇 천 년 되었다는 믿음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본 전문가들은 결코 그러한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선입관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암석들이 단지 몇 천 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들은 암석들이 현장이나 실험실에서 오염되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기술자들이 암석들을 뜨겁고 강한 산으로 잘 닦고,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가능한 오염을 제거했을 때에도, 이러한 "고대의" 유기물질들은 아직도 검출가능한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를 함유했던 것입니다.

AMS 내의 샘플 홀더는 예측 가능하게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가 전혀 없음을 가리키므로, 과학자들은 자연스럽게, 검출된 방사성 탄소는 고대 암석 "내부에서" 나온 것이라고 결론 내려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방사성 탄소가 진짜로 "고대" 유기물질을 구성하고 있던 원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선입관은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자연스러운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Andrew Snelling, Ph. D in Geology . / 이충현 번역
* 본 글은 How do we know Bible true II (Master Books), 11장에서 발췌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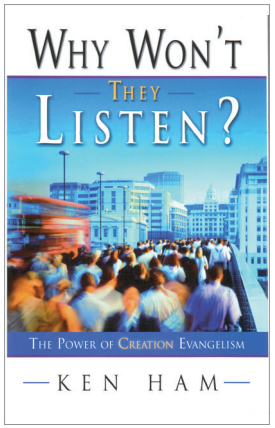
Why won't they listen?을 읽고



창조과학을 알게 되어 관심을 갖고 공부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그리고 특히나 「Why won't they listen?」이라는 책은 나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돌아보고 재정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었다. 먼저 이 책을 읽기 전 뿐만 아니라 창조과학을 공부하기 전까지만 해도 "진화론이 크리스천들에게 영향을 주면 얼마나 많이 주겠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공부하면서 크리스천들을 공격하는 거의 모든 것 가운데 진화론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 책을 읽으면서 감명을 받았던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청중들의 수준의 맞게 전도의 수준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생활을 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나 학교 친구들, 또 현재 성경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또 하고 있는데, 그동안 청중의 수준을 알고 그 수준에 맞춰서 전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몰랐다. 그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그저 내가 아는 것과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나누는 정도였다. 그래서 항상 전도를 하고 교제를 나눌 때마다 내가 나누고자 하는 말을 상대방이 이해할 때도 있었지만 전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방이 좀 더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왜 그렇게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전도 대상자들의 성경적 지식은 전부 다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만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친구도 있고, 평생 살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만 배웠지 창조론이라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친구도 있고, 진화론이 믿음에서 시작된 것처럼 창조론도 하나의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냐(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다. 그리고 반대로 성경적 지식도 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곧 마음이 옥토인 친구도 있다.



그러나 내가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달랐던 점은 겨우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 정도였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복음의 기초를 잘 세우려고 하지는 않고, 급하게 빠르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의 문제점을 보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하고 기대를 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와 닿고,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부분은 창세기(창조론)를 향한 진화론의 공격과, 진화론을 성경과 타협했던 교회들의 무너짐 그리고, 크리스천들의 무너진 생활이다. 특히나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가 성경을 진화론과 타협하지 않아 젊은이에게 흥미를 가져다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진화론과 타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큰 통찰력을 얻었다. 진화론은 성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 공격하고 있지만 반대로 크리스천들은 진화론이 기독교의 무엇을 무너뜨리는지도 모르고 그것과 타협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미 진화론과 타협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다. 나도 그렇다. 나는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수업을 많이 듣지 못했고, 진화론도 많이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사회를 통해서 많은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왔고, 그 영향이 성경을 볼 때에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나도 모르게 진화론과 타협하는 관점으로 보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도 말했듯 나는 "진화론이 크리스천들에게 영향을 주면 얼마나 주겠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과 현상들을 알고 보니, 정말 실제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보이기 시작했다.

진화론은 창조를, 창세기의 처음을 공격해서 믿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를 믿지 못하면 성경의 전체를 믿지 못하거나 왜곡하게 된다. 실제로 진화론의 많은 영향을 받은 크리스천들은 성경에 대해, 창조와 진화론에 대해, 노아 홍수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있고, 그것에 답을 원하지만 아직 나는 그것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안다. 내가 먼저 공부하고 이해해서 그것들에 대해 궁금해 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열심히 받을 것이다. *김에녹 / 대학 3년, 9기 ITCM*

창조과학탐사 / 세미나 / 한국방문 / 유학생 탐사

ACT News

창조과학탐사

지난 10월에 두 번의 창조과학탐사가 있었습니다.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11/12-19)와 예장합동 수원노회(11/23-27)에서 참석하셨습니다. 거의 풀코스로 진행된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의 창탐은 이번이 13번째 참석입니다. 그랜드캐년,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 운석구, 규화목공원, 데스 밸리, 요세미티 등을 돌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 창조뿐 아니라 홍수심판과 그에 이어지는 빙하시대의 과학적 증거를 성경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 창탐은 교회나 단체에서 참석하지만, 유일하게 모집하는 곳이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입니다. 한 해에 두 번씩 모집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두란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인디애나 한인침례교회

합동 수원노회 목사님과 장로님 내외 40명은 닷새간 참으로 진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의 증거뿐 아니라, 이 시대에 한국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진화론에 확연히 노출된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수원지역의 다음 세대를 이 프로그램에 보내고, 또한 수원지역 교역자들을 위한 세미나도 열 것을 계획하는 진지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11월 말 EM(영어권) 탐사를 끝으로 2017년 창조과학탐사는 마무리 됩니다. 해를 더할수록 창탐의 열기도 더해갑니다. 올해도 이전 해보다 훨씬 감동적이고, 진지했습니다. 이는 한국 교회에 진화론과 성경을 섞어서 믿으려는 타협이론들이 대두됨으로 인해 오히려 그 문제점의 심각성을 직감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진화론으로 가득찬 시대에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울러 창탐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과 또한 창조과학선교회를 후원과 기도로 도와 주시는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세미나

이재만 선교사는 미시간 랜싱 새소망교회(담임목사 조영호)와 인디애나 은혜한인침례교회(김한솔)에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학원가에 위치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합동수원노회

노휘성 강사는 지난 11월 6일 한동대학교 창조과학동아리(두두스)에서 '우주의 기원' 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과학적인 데이터와 그것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것에 작용하는 철학적 전제들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진화론 패러다임에 갇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들은 성경이 사실인 것을 조금도 반박하지 못함을 확인하며, 성경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지키고 증거하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동대 두두스

이재만 회장 한국 방문

이재만 회장은 오는 10월 31일 출국하여 12월 8일까지 한국, 대만, 홍콩, 베트남 등을 순회하며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복음기도동맹에서 주관하는 '2017 다시 복음 앞에'를 비롯하여, 횃불트리니티 CEO, 한동대학교에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이어서 여러 교회에서 세미나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이어서 대만의 은혜 국제 신학교에서 대만 목회자들에게, 홍콩 중앙장로교회, 호치민 온누리교회에서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가는 곳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부탁드립니다.

유학생 창조과학탐사

오는 2018년 1월 2-5일 3박 4일 간 진행되는 19차 유학생 창조과학탐사는 마감되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이나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9기 ITCM

오는 2017년 12월 말부터 진행되는 ITCM(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창조사역 집중훈련)이 창조과학선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미 훈련생 선발을 마쳤습니다. 참가자들이 이 진화론 시대에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물의 역사가 가리키는 것은?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생물종들은 변해왔어야 한다. 진화론자들이 모든 교육기관을 통해 가르쳐 온 바에 의하면 그래야 한다. 반대로, 고생대, 중생대를 보여준다는 지층 안에 현대적 생물이 함께 발견된다면 진화론은 틀린 것이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의학 박사인 칼 워너는 이점에 착안하여 매우 대범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과연 공룡이 발굴되는 지층들에서 현대적 생물종들이 함께 발견될까?"

그는 이 거대한 검증을 위해1997년부터 16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며 전 세계 공룡화석 발굴지와 자연사박물관을 직접 찾아다녔다. 사진을 찍고 세밀히 관찰하고, 유수한 고생물학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화석에서 본 생물들을 세계 곳곳에서 찾아내어 정밀하게 비교하기 시작했다.[1] 결국, 그는 찾아간 모든 공룡 화석 발굴지와 전시관에서 화석으로 보았던 생물들이 현재도 지구 곳곳에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디플로도쿠스 등이 발굴된 와이오밍의 쥬라기 암석층에서 함께 나온 불가사리는 지금 살고 있는 브리틀 불가사리(Brittle star)와 똑같으며, 남부 오스트레일리아의 백악기 층의 바다나리 화석은 지금 살고 있는 바다 나리(stemmed crinoid)와 아주 흡사하고, 시조새가 나온 곳으로 유명한 독일의 솔펜 화석 발굴지(Solnhofen Fossil Quarry)의 무척추 생물 화석들은 오늘날의 걸프 새우, 바닷가재, 말발굽 게, 프론새우, 민물가재(Cray fish), 잠자리, 딱정벌레 등과 완전히 모양이 일치한다. 그리고 중생대에 형성되었다는 아리조나의 규화목 공원에서는 오늘날과 똑같은 형태로 나무에 둥지를 만든 터마이트 둥지 화석 등을 발견한 것이다.[2]

그 밖에도 조개, 홍합, 굴, 앵무조개, 산호, 폐어, 실러캔스, 장어, 엔젤상어, 가오리, 벌, 나비, 소금쟁이, 귀뚜라미, 달팽이, 도롱뇽, 악어, 뱀, 이구아나, 도마뱀, 거북이, 앵무새, 올빼미, 플라밍고, 오리, 펭귄 등 수많은 해양 무척추 생물과 곤충, 양서류, 파충류, 조류의 주요 생물군이 바로 공룡 화석 발굴 지층에서 현대적 모습과 동일한 형태로 발견됨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는 공룡이 발굴된 지층에서 포유류 화석도 함께 나왔다. 공룡이 발견되는 퇴적층에서 거의 300속(genus), 즉 수백 종(speices)에 해당하는 포유류 화석이 함께 나오고 있다. 완전한 골격이 발견된 포유류 화석만도 거의 100구는 된다고 고생물학자들이 그에게 말해 주었다.[3]

그렇다면, 중생대 쥬라기, 백악기를 단지 공룡의 시대라고 할 수 있나? 커다란 공룡뼈 화석에만 집중하면 그렇게 말하고 싶다. 그러나 지층에 포함된 모든 화석을 고려하면 마치 지금의 생물계처럼 당시에도 공룡과 함께 수많은 생물종들이 섞여 살았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지금은 공룡이 없을 뿐이다. 워너 박사의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이 거대한 실험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생물들이 자연선택과 돌연변이에 의해 변화가 축적되어 새로운 종류로 바뀐다고 주장해 온 진화론이 적어도 화석 증거로서는 틀린 가설임을 정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생물들은 화석과 다름 없는 모습으로 지금도 살고 있다. 화석은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동안 새로운 종류들이 생겨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던 생물 종류들이 사라져왔음을 보여 준다. 이는 현재 판다, 코뿔소, 아시아 코끼리, 시베리아 호랑이, 붉은 늑대 등 일부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과도 일치한다. 어쩌면 우리의 후손들은 이러한 생물들을 책에서만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존재했던 생물을 지금 못 보고, 지금 보고 있는 생물들을 미래에 보지 못한다는 말이다. 생물의 역사를 정직하게 평가하면, 새로운 종류들이 출현해왔거나, 출현하고 있지 않으며, 반대로 멸종해왔고, 멸종하고 있다. 과거가 더 좋았다는 말이다. 그럼, 처음의 생물들은 모두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생물의 역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가 보이는 증거들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오랜 세월 점진적 변화에 의해 생물종들이 출현해 왔다'라는 진화 패러다임의 안경 때문에 성경적인 생물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진화 패러다임이야 말로 화석 증거로도 현실 관찰로도 또 실험 결과로도 입증되지 않지만, 지난 150여 년간 지속적인 주장과 교육의 결과 우리는 어느 새 수십억 년의 진화 역사가 진짜 생물의 역사라고 믿고 살고 있다.

진짜 생물의 역사는 창조 주간6일 동안 생물들이 종류대로 완성되었으며, 전능하시시고 선하신 분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창조된 것이다. 그 후 첫 범죄 이래로, 생물계는 '죽음'과 '멸종'을 겪어 왔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롬5:12), 땅은 저주를 받았다(창3:17).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 뿐 아니라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았다(창3:14). 죽음이 들어왔고(창3:19), 모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었다(창3:18). 피조 세계가 허무함에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롬8:20) 죽음과 부패의 법칙 아래 놓이게 된 것이다. 죄가 들어왔을 때, 그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피조세계가 신음하게 된 것이다(롬8:22). 특별히 전지구적인 홍수 심판 때 다량의 화석들이 생성된 것이다.

부모로부터 유전정보를 물려받아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있지만, 끊임없이 죽음과 멸종을 겪고 있는 것은 죄의 결과이다. 사람을 범죄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는 완전한 '회복'이 없이는 자연 스스로 이 죽음과 부패를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더이상 죽음과 멸종이 그냥 처음부터 있었던 자연현상인 것처럼, 더 나아가 새로운 생물을 나타나게 하는 무슨 신비로운 능력을 갖고 있는 미지의 힘처럼 미화되어서는 안된다. 멸종의 역사가 새로운 출현의 역사로 둔갑되는 것은 과학적 관찰과 증거때문이 아니라 오직 철학적 동기에 의한 희망 사항이다.

지난 150년간 그런 그릇된 희망사항이 우리의 사고를 물들여 우리를 죄없는 상태로 돌이키는 유일한 길인 십자가 대속을 약화시키고, 이 역사 끝에 죽음도 멸망(고전15:26)되는 완전한 회복이 있음을 희미하게 만들어 왔다. 그러나, 성경은 생물의 역사 끝을 분명하게 밝힌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롬8:19)이며,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산소망이다.

노휘성
지구과학교육

1) Carl Werner, 2008, Living Fossils Evolution: The Grand Experiment Vol2. pp.3-13
2) Carl Werner, 2008, Living Fossils Evolution: The Grand Experiment Vol2. pp.30-70
3) Carl Werner, 2008, Living Fossils Evolution: The Grand Experiment Vol2. pp.170-173

창조과학탐사

부산호산나교회

8/24~30, 2017

이번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성경은 100% 사실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지식으로 알긴 알지만 내 삶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6일간의 천지창조, 전 지구를 엎었던 노아홍수, 900살 이상의 인간의 수명은 더 이상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었음에 놀라웠습니다. -이현숙 <부산호산나교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위대하신 걸 느끼고 성경은 사실이라는 신념이 더욱 굳건히 믿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눈은 되게 호강하였지만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서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상훈 〈부산호산나교회〉

탐사를 통해 성경을 좀 더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창조과학' 에 대해 공부하고 주위의 진화론자들에게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올 수 있길 기도하며… -김다정 〈부산호산나교회〉

아무생각없이 창조과학을 참여하게 됐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했고 생각보다 내안에 창조주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구나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냥 생각없이 지나치던 자연이 이제는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랑의 흔적으로 느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김효은 〈새한장로교회〉

이 세상 가운데 뿌리깊이 자리잡은 진화론의 가치의 반대는 성경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며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철저한 계획 가운데 전지전능하심으로 이루신 완전한 창조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며 세상을 향하신, 인간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윤우람 <부산호산나교회>

2009년 창조과학을 처음 접하면서, 그저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믿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보고들으니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동시에 목격하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내가 이 창조론을 알려야겠습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조윤재 〈새한장로교회〉

배우고 보며 들었던 생각은 진화론이 휩쓸고 있는 패러다임 속에 아무 필터링 없이 얼마나 물들어 있었던건지,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지식들에 얼마나 당연하게 믿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어 놀랐습니다. -유예지 〈부산호산나교회〉

창조론에 대한 막연한 지식으로 인해 주변 친구들이 창조론과 교리를 물어봐도 제대로 답해주지 못하는 제가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고 공부해보기 위해 창조과학탐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기대하고 생각한 것 보다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해주셨고 분주하고 엉망이던 제 생각들이 정확하게 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인 〈부산호산나교회〉

● 편집되지 않은 많은 간증은 Homepage(www.hisark.com)의 "ACT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역일정

2017/2018 ACT Schedule

12/12	창조과학세미나 (충현선교교회), 이재만
12/26-2/8	제9기 ITCM
12/7	창조과학세미나 (제일영광교회), 노휘성
1/2-5	창조과학탐사 (19차 유학생), 이재만
1/15-21	창조과학탐사 (예인교회), 이재만
2/19-23	창조과학탐사 (서초충신교회), 이재만
3/1-3/31	한국 및 대만 세미나, 이재만
4/8-14	창조과학탐사 (샘터성경사역원), 이재만
4/16-18	창조과학탐사(남침례교국내선교부), 이재만
4/23-27	창조과학탐사 (대전온누리교회), 이재만
4/30-5/5	창조과학탐사 (기독교미래연구소), 이재만
5/10-17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5/18-24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5/28-6/2	창조과학탐사 (이랑학교), 이재만
6/4-10	창조과학탐사(서울드림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ACT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